바나나 전도

(행10:1~48)

24.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25.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리어 절하니
26.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27.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28.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29.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30.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구 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31.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으시고 네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32.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33.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34.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35.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바나나 전도>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바나나 전도'

한동안 '고구마 전도'라는 말이 한국교회 안에 크게 유행할 때가 있었습니다.
요즘도 역시 고구마 전도라고 하는 말이 가르치는 바를 따라서 전도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기억을 되살려보자면 고구마 전도란 무엇이냐?

고구마를 찔 때, 다 삶아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젓가락으로 찔러봅니다.
그러니까 고구마가 익을 때까지 계속 젓가락으로 찔러보듯이 사람을 고구마로 생각해서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까지 계속 찌르듯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 믿으십니까? 라고 물어보았는데, '예수를 왜 믿느냐, 쓸데없는 소리 마라' 하면, 완전히 설익은 고구마이죠.
이래도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시면 참 좋습니다,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반복해서 하면서 계속 찔러보는 겁니다.
그래서 받아들이게 되면 익은 거죠.
이런 방식으로 전하는 걸 고구마 전도라고 해요.

그런데 그 말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이 말하는 바를 그대로 우리가 표현해낼 수 있는 단어가 있다면, '바나나 전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다는 겁니다.
로마군대의 백부장인 고넬료에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령이 임하게 되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는 것과 세례를 받는 것은 순서가 꼭 정해진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사도행전 2장에서는 베드로가 마음에 찔려서 묻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대답하잖아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그러면 성령이 선물로 주어질 것이다' 그랬는데, 오늘 고넬료에게서는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이미 고넬료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러고 나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꼭 정해진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려는 게 무엇인가?
이방인에게 유대인 사도들의 우두머리인 베드로가, 그리고 아직까지 베드로의 생각 속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한 구분이 뚜렷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베드로가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심을 통하여, 그래서 그렇게 전한 복음을 듣고 성령이 임하시고 구원의 반열에 이방인인 고넬료가 들어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방인 전도에 대한 것을 공식화하십니다.
이 공식화된 고넬료가 복음을 받아들인 이 사건을 통해서 바나나 전도라는 말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상황에 오늘 10장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말씀의 내용들이 반복되고 있다고 보면 된다 이겁니다.

복음이 전도되어지는 디테일 한 면에서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큰 줄거리로 볼 때 10장에서 말씀하고 계신 이 말씀의 내용들이 반복되는 것이 복음의 전도과정이라 이겁니다.

자, 오늘 이 고넬료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베드로가 복음을 전한 이 사건을 바나나 전도라고 제목을 붙이고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바나나가 사과보다도 더 값이 싼 그런 세상을 꿈꿔본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어렸을 때 바나나는 그냥 그림책 속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과일이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사과보다 더 싸요.
바나나가 어느 과일보다도 더 많은 양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비타민 C가 풍부하고 섬유질이 많고 성인병 예방에 탁월한 칼륨이 한 개 당 무려 450mg 씩이나 들어있고, 그래서 이유식도 바나나가 주입니다, 하여간 닥터들이 권면하는 아이들의 이유식에 바나나가 반드시 들어있습니다.
또 운동선수들이 바나나를 즐겨 먹습니다, 왜냐하면 탄수화물이 많기 때문에 에너지원으로 이 바나나가 애용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고혈압 당뇨병이 걱정되는 성인들에게 있어서 이 바나나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처럼 양분이 많은 바나나, 그러나 양분 때문에 먹지는 않아요.

바나나를 사람들이 맛있게 많이 먹는 이유는 달기 때문이고, 가장 큰 이유는 껍질을 벗겨먹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하여간 바나나처럼 껍질을 쉽게 벗길 수 있는 과일이 없어요.
예를 들어 토마토도 껍질을 벗기지 않고 먹어도 되지만 씻어야 돼요, 사과도 마찬가지에요.
그런데 바나나는 언제 어디서든지 껍질만 벗기면 먹을 수 있고, 껍질은 칼이 없어도 벗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바나나를 많이 먹는 것 같아요, 달고 맛있으면서 껍질 벗기기가 쉽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 이 바나나의 껍질과 알맹이가 유착되어 있다면, 유착이란 떨어져서 따로 기능해야 될 피부나 장기들이 상처가 났다가 아무는 과정에서 다른 장기에 달라붙어서 떼어지지 않게 되는 상황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유착되어 있는 바나나가 있겠습니까?
그건 바나나일 수가 없습니다, 껍질이 벗겨져야 바나나에요.

자,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이 '바나나 전도'를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복음과 연관되어서 하나님이 사람을 보실 때, 사람을 바나나로 보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데 '바나나 전도'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한번 살펴봅니다.
먼저, 복음이 전도되어지는 과정은 하나님께서 앞과 뒤를 다 맞추십니다.
우리 앞에서도 보았어요, 에티오피아 내시가 전도 받는 내용을 봤습니다, 성경을 읽고 있었고 성령께서 빌립 집사님을 그 앞으로 보내십니다.
똑같은 거예요.
가이사랴에 살고 있는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군인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환상이 보입니다.
'욥바에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를 청해서 말씀을 들어라!' 지시를 내립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가이사랴에서 욥바까지 50km 떨어져 있는데 욥바로 사람을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는 자에게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제6시에 기도할 때에 앞서서 고넬료로부터 보냄 받은 사람들이 도착하게 되는데, 도착하기 바로 전에 기도 중에 또 환상을 봅니다.
네 귀퉁이가 실로 꿰매진 보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구약 율법에서 금지한 온갖 부정한 동물들이 가득합니다,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잡아먹으라고.
근데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율법에 의거해서 부정하다고 규정된 음식을 먹을 수 없다고.
그러니까 하늘에서 다시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네가 부정하다고 하지 말라' 그런 환상을 봅니다.

부정하다고 베드로가 느낀 것이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이방인인 고넬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28절에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위법이에요, 더러워진다는 겁니다.
근데 가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자와 복음을 듣는 자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것이에요.
그 역사하시는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고넬료가 이방인으로서 유대교에서 말하고 있는 여호와하나님을 믿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을 구제했다고 그래요.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고넬료는 식민지의 종주국 국민입니다.

그런데 식민지하에 있는 나라의 민족이 믿는 신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얼마나 신이 형편없으면 식민지가 되게 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민지 민족이 믿는 하나님을 받아들입니다.
이게 무얼 말하는 것입니까?

고넬료가 자기가 처한 상황에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로마인으로서 백부장 장교로서 부족함이 없이 삽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상황 속에서 안정된 모든 조건이 주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행복의 근원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식민지인 유대민족이 믿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추구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바나나의 특징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내게 주어지는 모든 환경과 조건과 내 이름과 타이틀, 내가 로마사람이라는 이 모든 것들이 다 껍데기에요.
이게 다 껍데기라는 거예요.
내가 로마사람이라는 것도 껍데기고, 백부장이라는 것도 껍데기고, 정부에서 주는 급료를 받아서 안정된 삶을 살고 있다는 이 현실 삶의 조건도 껍데기이고…
마음이 이 껍데기에 만족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맹이인 마음이 이 껍데기의 상황과 떨어져 있습니다.

바나나처럼 껍질을 벗겨버리면 알맹이가 고스란히 드러나듯이 그렇게, 고넬료의 마음에는 주어져 있는 이 세상의 조건이 달라붙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백부장이라고 하는 것에 딱 달라붙어 가지고 거기에서 만족을 얻고 그러지를 못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식민지 유대인과 비교할 때 식민지 종주국인 로마인이라는 신분에 만족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 조건에 붙어있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바나나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준비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넬료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더라도, 주어져 있는 이 세상, 보이고 들리는 것이 타이틀이다, 돈이다, 직장이다, 하는 것이 없으면 당장 불편함을 느끼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주어진 껍데기로 마음이 붙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떤 것을 주어도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세상 것이 없으면 불편함을 느끼는 것 맞습니다만, 세상 것이 다 주어진다고 해도 만족하지 못하고, 세상 것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세상 것을 찾는 것보다는 뭔가 자꾸 보이지 않는 세계를 향하여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준비시킨 바나나라이겁니다, 껍데기와 알맹이가 따로 노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치십니다.
사람을 바나나로 보라! 이겁니다.
아직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태어나면서부터 듣고 자랐던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한 구분이 다 없어지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유대인은 유대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지금 복음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방인은 근본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멸망이 운명적으로 정해져 있는 존재들이라고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태어날 때부터 배우게 된 그 상태가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들끼리 교인이 되어서 잘 지내고 있을 때는 몰랐습니다.
그 생각이 없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전도를 하도록 이끄십니다.
이때 베드로가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는구나!'
이 외모에 속한 게 뭐냐 하면, 다 이런 거예요.

내가 대한민국 사람입니까? 외모에 속한 거예요.
내가 지금 얼굴이 크고 3등신이다, 이거 외모에 속한 겁니다.
이 세상에서 주어진 모든 것들이 다 외모에 속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오바마 대통령이다, 그가 흑인이다, 그가 미국사람이다, 이게 다 바나나 껍질이라는 겁니다.
그의 알맹이는 마음이에요, 마음.
오바마 대통령의 마음은 흑인도 아니고, 미국사람도 아니고, 대통령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이 '내가 흑인이다'라고 하는 껍데기에 유착이 돼버립니다, 내 알맹이는 따로

놀아야 된다는 거예요, 따로.
알맹이가 따로 놀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여자로 태어났습니다.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것도 바나나 껍질이고 여자라는 것도 바나나 껍질이고 대통령이라는 것도 바나나 껍질이라는 거예요.
그 알맹이인 마음은 여자도 남자도 아니고, 한국 사람도 아니고, 대통령도 아닙니다, 그 마음 자체는.
그래서 유착상태가 끊어져서 이 세상에서 주어진 모든 껍데기와 따로 놀고 있는 마음의 알맹이가 완전히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베드로가 '외모로 취하지 아니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 하지 않아요?
이 의를 추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 껍데기의 조건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바나나 전도는 어떨 때 일어나느냐?
하나님께서 앞뒤를 맞추어 가실 때, 복음을 듣는 사람은 뭔가 이 세상의 조건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향하여 마음을 열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마찬가지로 바나나로 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김태희 씨, 장동건 씨, 그들의 아름다운 외모는 껍데기라는 거예요.
아주 추남, 추녀가 있다, 그 못생겨 보이는 그들의 외관의 모습은 껍데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김태희 씨의 알맹이나 못생긴 아가씨의 알맹이나 똑같다는 얘기에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사람을 볼 때의 관점이 이렇다는 거예요.
이건희 씨가 삼성이라는 어마어마한 세계적인 그룹의 회장이라는 것은 바나나 껍데기에 불과한 거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알맹이나 노숙자의 알맹이가 똑같다는 거예요.
다 바나나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바나나를 하나 구해가지고 사인펜으로 여러분의 모든 identity에 속하는 모든 것을 적어보세요.
'나는 누구의 아버지다, 누구의 남편이다, 누구의 아내다, 누구의 아들과 딸이다, 어느 직장의 과장이다, 부장이다' 이런 모든 나의 identity를 다 적어보세요.

그리고 그 껍질을 벗겨내세요, 그 알맹이가 바로 나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나가 바로 그 알맹이라는 겁니다.

이런 관점으로 사람을 본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달라져요.
자식을 키울 때도 사람이 바나나라는 걸 알게 되면, 내 자식의 알맹이인 마음이 대체 어디에 가 붙어있는가, 껍데기에 유착되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복음이 하는 일이 뭐냐?
외모, 바나나 껍데기에 알맹이인 마음이 유착되어 있는 상태를 십자가가 다 끊어줍니다.
나는 대한민국 사람이기 전에, 남자이기 전에, 여자이기 전에, 누구의 아들이고 딸이기 전에, 누구의 아빠고, 남편이고, 아내이기 전에, 그 알맹이를 가지고 아직 껍질에 유착되지 않은 마음을 십자가가 회복시키고,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죽게 함으로, 그 알맹이인 마음을 하나님께로 바쳐지게 해주는 게 십자가복음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나나 전도란 뭡니까?
내가 복음을 들은 사람으로서 언제나 내가 바나나라는 것을 인식합니다.
이 세상에서 주어진 조건과 타이틀과 이름과 내 모든 정체성은 다 이 세상에 속해있는 한 바나나 껍질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붙잡고 날마다 죽음으로써 내 마음에서 내 껍질을 벗겨냅니다.
껍질을 다 벗겨낸 알맹이인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 어느 것에도 매여 있지 않고 유착되지 않는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드릴 때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으니까.
그렇게 된 상태에서 다시 하나님이 이 땅에 내보내실 때, 유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과장도 되고 차장도 되고, 아빠도 엄마도, 아내도 남편도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건 내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한테 허락하신 캐릭터이지 진정한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바나나이다, 모든 사람이 바나나다.'
이 관점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앞뒤를 맞춰 가시면서 들을 사람을 골라서 내 앞에 세우시고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복음의 전파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나 자신의 존재가 바나나임을 기억하게 해주셔서, 날마다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내 마음에서 껍질을 벗겨내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로 옷 입음을 통하여 유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세상에서 주어지는 모든 타이틀들을 수행해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